

2021년도 풀씨연구회 1기 결과보고

지역생활환경운동연구팀

본 연구모임은 한국 사회에서 생협들의 환경운동과 관련된 지역 시민운동 사례는 현장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체계적으로 연구 발표된 적은 없으며 특히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에 대한 협동조합의 공헌과 관련된 연구는 해외 사례 외에는 국내 사례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현재 생활협동조합들이 지역 사회의 환경운동을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SDGs 목표에 근접하게 달성하는지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고 정량분석을 거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총 7회 연구모임 진행)

팀장 이병욱 안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팀원 김준하 윤미향 국회의원 보좌관

팀원 박그린 사회적기업 나눔스토어 대표

팀원 이미옥 아이쿱협동조합 지원센터 이사

팀원 조인숙 양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팀장

생활협동조합의 지역 환경 운동 연계 활동과 환경적 가치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에서의 협동조합 시초에 대한 시각은 이론적 성격에 따라 기원을 달리하지만 그 정신은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두레와 조선시대의 계와 향약이라는 것에 대한 것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근대 협동조합의 시초는 1907년 지방금융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¹⁾ 금융조합은 화폐정리 사업, 납세선전 등 일제 총독부의 사업을 대항한 측면이 많고, 일제 총독부의 철저한 지도 아래 운영되는 등 관제협동조합의 성격이 강했으며 1918년에 도(道)연합회를 만들어 금융기능을 강화하고, 1933년에는 전국 단위 조선금융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대규모 은행조직으로 바뀌면서 생산자협동조합적 성격을 완전히 상실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지금은 협동조합 정신을 기초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능동적인 민간협동조합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관제협동조합에 대항하여 민간 차원의 자생적인 협동조합 운동이 전개되었고 문헌상으로 확인된 최초의 자생적 민간협동조합인 1920년 설립된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YMCA가 설립한 농촌협동조합, 천도교의 조선농민사가 추진한 농민공생조합, 일본유학생들의 협동조합운동사가 추진한 농촌조합 등 크게 세 갈래로 전개되었는데 해방 후 협동조합운동이 좌익계열의 전국농민조합총연맹과 우익계열의 대한독립농민총연맹 산하 농민후생조합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또한 1952년 당시 농림부장관의 주도로 사단법인 농촌실행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각 시군으로부터 선발된 농협지도자를 육성하여 조합 설립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하향식 농협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들, 농민들 스스로 자주적인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농민단체들은 농협민주화운동을 중요한 활동 과제로 내걸고, 1990년대 시민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다양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비자공동구매협동조합은 일제하부터 시작되어 간헐적이고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설립된 이후 사업체로서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그 뜻을 이어받아 1980년대 후반에 유기농산물의 공동구매사업에 특화된 생협 조직들이 최근까지 가장 대중적 규모로 확대되어 발전하고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생협들인 한살림, iCOOP생협, 두레생협, 여성민우회생협(행복중심) 등 네 갈래의 생협들은 2020년 말 현재 공급액이 2조 3803억원에 달하고 조합원은 289만 명에 이르고 있다²⁾. 이처럼 한국의 생협들은 앞서 제시한 바, 다양한 배경 하에서 발전해왔는데 1980년대 이후 환경, 생태, 생명사상에 기초한 환경농산물의 직거래활동으로 시작되었고 오늘날 생협운동이 환경농산물 직거래단체로 인식되어진 배경에는 1980년대 초반 생환경, 생태, 생명사상의 영혼을 받은 도시지역 환경 생태 운동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생협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생산자본과 유통자본의 횡포로 양질의 생필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공동 구매하는데 있으나 한국의 생협은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생협운동의 발전과 달리 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안전한 농산물의 구매, 환경을 살리는 농업의 지원, 직거래 등) 활동이 전개되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으며 지금도 그 활동의 정신은 동일하다.

따라서 한국의 생활협동조합의 정신인 환경, 생태, 생명사상은 생태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기본 골간을 이루는 사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더 깊숙이 환경문제를 일상이나 교육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환경운동의 계기가

1) 국가기록원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모태가 되는 금융조합은 한말 일제가 지방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1907년에 각 지방에 설립한 지방금융조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당시 지방금융조합은 정부로부터 자금을 대어받아 소액의 농업경영자금을 취급하는 것에 그쳤으나, 이 기관이 1912년부터 조합원의 예금을 받고 1918년에는 새로운 금융조합령에 의거 도시금융조합과 촌락금융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 은행업무도 취급하기 시작한다. 이 말단금융조합은 각도금융조합연합회(1933년 이후 금융조합연합회)를 통해 조선식산은행과 연계하여 일제 식민지시대에 농촌 및 도시의 주요한 말단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 업무는 물론 일제의 각종 정책사업을 맡거나 지원하였다.

2) 2020년 국회에서 열린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 발표 자료

되었으며 환경농업운동 및 생협운동과 연관되어 실천적으로 전개되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환경시민운동은 그 특성상 개별적 실천보다는 지역공동체적실천이 전제될 때 올바르게 전개될 수 있었다.

2. 연구의 목적

2000년대 초 생활협동조합의 성격이 전세계에서 대안경제 활동으로 주목받았던 것은 경제불황의 극복이나 고용 문제해결을 넘어 최근에는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두레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들이 ‘플라스틱프리 제로 웨이스트’(Plastic Free , Zero waste 지구를 지키는 소비자·생산자 선언)을 진행한 것처럼 환경 문제에도 대안적 성격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협 활동을 통해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 오염요인이 야기한 기후변화 및 팬데믹 등의 사태에 대응하며, 친환경농업의 생산·소비를 통한 보다 나은 미래의 조성을 도모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의 지역 환경운동 재조명은 그래서 필요성이 충분하다. 특히 생협의 역사 속에서 강원도 원주지역 생협처럼 1972년 남한강유역에 내린 홍수로 많은 지역이 수해를 입자 외국기관의 원조를 받아 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해지역에 대한 구호활동과 협동운동을 지도, 지원하기 시작하여 많은 활동가들이 농촌지역의 협동사업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2021년 현재까지도 원주생협이 환경 복지 운동으로써의 소비자조합원이 가입하기 시작하여 환경활동가 및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생협으로 모델을 설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모델의 정립이 대두됨을 보여준 사례처럼 생협들의 환경운동과 관련된 지역 시민 운동 사례는 현장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체계적으로 연구 발표된 적은 없으며 특히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협동조합의 공헌과 관련된 연구는 해외 사례 외에는 국내 사례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ICA 창립 125주년,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25주년 서울 대회는 이같은 생활협동조합 정체성과 SDGs의 관계를 협동조합 7번째 원칙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고 UN이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SDGs를 채택하기 20년 전에도 한국의 생활협동조합은 원주의 생협 사례처럼 지속가능한 성장을 언급했던 것을 볼 때 현재 생활협동조합들이 지역사회의 환경운동을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SDGs 목표에 근접하게 달성할 수 있는지, 이미 얼마만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코자 하는 사례기반 연구를 통해 사회공헌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천에 앞장서 온 생협의 시민 환경 운동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협동조합의 역사

인간은 역사 속에서 수렵사회를 거쳐 농경 사회로 오는 동안에 개인에서 집단으로, 효율을 위한 선택을 했고 자연스레 농경사회에서는 집단생활을 통한 나눔과 이익공유에 대한 형태를 습득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자본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에서 이러한 공동체가 시장의 역할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강제장치로 인해 파괴되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엔클로저운동에서 이런 초기 자본주의 체제의 강제성과 폭력성을 명확히 보여주며 자본주의의 발전 속에서 노동자들은 생산과정에서는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고, 생활은 공동체가 파괴된 도시에서 개별적으로 살아가도록 방치되었다. 이렇게 비인간적인, 또는 비사회적인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대안으로 공장의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운동, 노동자들이 술을 절제해야 한다는 금주운동, 자본가들에 대해 협상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노동조합운동, 노동자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는 차티스트운동 등과 함께, 아예 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로버트 오웬의 뉴하모니 공동체 운동 등이 탄생하였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협동조합으로 인정받고 있는 로치데일협동조합의 1943년 노동조합운동의 동맹파업이 실패에 따른 노동자들이 생산과 소비를 통합하는 협동조합사회의 아픈 결과³⁾였다.

영국에서의 로치데일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삶을 위한 협동조합 역사 속에서 1844년 12월, 28명의 조합원으로 협동조합으로 출발, 1866년에는 조합원수는 50배, 자본금은 400배로 늘어났고, 1851년에는 매일 새로운 점포를 열었고 이를 소비자협동조합의 시작이 되었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유럽 전역에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전파되어 이들 나라들은 각각 자본주의의 성숙 정도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달라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중요한 내용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협동조합 운동은 앞서 말한 관계 위주의 역사 속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공생하는 방법론과 노동과 인권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진 지역운동에 기인되는 한국 내 생협이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든 협동조합이고, 농협을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협동조합이 시작될 때에는 그 나라의 경제적 상황과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한국 역사 속에서 지금과 같은 생협이 생기게 된 것은 한국의 역사와 경제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한국 사회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이나 현재와 같은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소비자협동조합은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 출현했다고 볼수 있으며 명칭도 소비조합 또는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약칭 '생협')으로 바뀌게 되었다.

2. '생활협동조합'의 환경분야 성과 고찰 선행연구 분석

생활협동조합 분야의 기존 연구는 다양하지만 환경운동과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진 다. 첫째로는 생협 조합원들의 신뢰자본이 지역환경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점에 주목한 것이고 또 하나의 관점은 생협운동의 정신에 깃든 생명운동과 지역 환경운동 네트워크를 통해 바라본 시각이다.

특히 지역 내 조합원인 소비자가 생협 참여를 통해 단순히 물품 이용에 그치지 않고 조직에 대한 신뢰로 이어 지며 공공이슈(지역 환경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회협력 활동으로 연결되는 것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생협운동을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규정지은 권미영(2010) '생협회원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협력에 관한 연구'는 신뢰자본의 측면이 조합원 사이에 지역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조합원들의 신뢰자본과 지역환경운동 영향
① 권미영(2010) '생협회원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협력에 관한 연구'
② 조완형(2009) '생협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상'
③ 허미영(2008) '생협의 대안적 소비문화의 성격과 그 함의'
④ 허남혁(2009) '생협 생산자 조직의 생산 - 소비관계 변화'
⑤ 오귀복(2007)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특징 분석'
⑥ 조완형(2007) '생협 조합원의 행태 및 특성 분석'

또한 윤병선(2010)은 '대안농업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에서 생협운동을 농민이 주도하는 대안농업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유기농업운동, 생협운동, 지역먹거리운동의 성장과정과 현황을 고찰하였는데 이같은 생협운동이 농민이 주도하는 대안농업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유기 농업운동, 생협운동, 지역 먹거리 운동의 성장과정과 현황을 고찰하고 있으며 지역로컬 환경 운동성의 대안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한 선행연구 등이 있다.

3)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개인'에서 '공동체'로 넘어오는 지구의 역사가 자본주의로 인한 공동체가 붕괴되고 노동자 개인의 몫으로 남은 비인간적인 형태를 타개하기 위한 인간 본성의 자발적 움직임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대안농업과 생명운동, 지역환경운동 네트워크
① 김용우(2010) ‘생명운동과 생활협동조합’ ② 정규호(2012) ‘한국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 ③ 윤병선(2010) ‘대안농업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④ 김흥주(2008) ‘풀무생협 생산자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관한 연구’ ⑤ 김흥주(2008) ‘친환경농업 생산조직과 생산자의 특성 및 대안 가능성’

제 3 장 생활협동조합의 환경운동 흐름

1. 생활협동조합과 지역운동

남강 이승훈 선생은 1907년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용동촌에 오산학교를 설립하였고, 고당 조만식 선생은 세 차례 오산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1920년 200명 규모의 조선물산장려회, 1933년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였는데 밝맑 이찬갑 선생은 오산학교 재학 중 자치조직인 용동 자면회 조직, 1928년과 1938년 일본 도쿄와 치바현, 시즈오카를 방문하여 소비조합 연구한 후 귀국하여 오산 소비조합 활동을 시작하였다. 충남 홍성지역은 생협운동의 전통이 강한데, 바로 이 이찬갑 선생으로 인해 지역 생협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며 1972년 풀무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 1980년 풀무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재발족한 후, 1999년 생협법 시행으로 풀무생활협동조합으로 재창립하게 되었다⁴⁾. 따라서 2020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맞은 홍성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홍성군의 흥동면에 ‘지역 환경운동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이 유기농업과 공동체 의식이였다. 도시와 농촌이 건강한 먹을거리로 더불어 사는 도농(都農)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풀무생협은 유기농생산자회, 쌀작목반, 유기농야채작목반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대대로 살아오고 농사지어온 땅이 죽는 환경문제와 농사를 직업으로 살아온 주민들이 기계화에 밀려 고향을 등지고 망연자실하는 상황에서 지역 풀무생협은 지역 농민 스스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생활공동체였다. 뿐만 아니라 1970, 80년대의 민주주의가 사라진 역사 속에서 조합원이 출자액과 상관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고 참가하는 비영리 조직을 스스로 결성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에 민주주의 의식을 갖는 생활정치의 지역 운동에도 큰 힘이 발휘되었다. 이처럼 지역 생활협동조합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주민 스스로 만든 현재의 리빙랩 활동과 유사성을 가진다.

강원도 지역은 원주(교구)에서 시작된 수재지역 지원사업과 신용협동조합운동을 진행하면서 쌓은 협동조합운동의 경험으로 강원도 평창의 신리소비자협동조합과 함께 지역 운동을 위한 비영리단체로서의 자본주의의 허점과 모순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고 지역민을 위한 교육, 개발주의자들의 유기농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정착성에 대한 논란 등에 선두주자 역할을 하였다.

2. 생활협동조합과 환경운동

이처럼 대한민국 생활협동조합의 역사는 지역 환경운동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해외의 협동조합처럼 연합회 성격을 먼저 띄고 지역에 나아갔다면 한국 생협들은 다양한 배경 하에서 지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탄생,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지역에서 처음에 출현한 생협은 신협이 전개해온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직거래에서 탄생한 생협인 바른생협인데 두레생협연합조직은 바른생협을 중심으로 하여 출발하였고 신협운동가들이 일본에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부터 배우고 지역신협의 도움을 받아 생협을 설립하면서 생협중앙회를 결성하고, 1990년대 후반에 수도권사업연합이라고 하는 사업연합조직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 조직이 나중에 노동운동에서 시작한 일부 지역생협과 종교운동에서 시작한 일부 단체생협 등과 공동으로 두레생협연합조직으로 발전

4) ICOOP 협동조합연구소 편저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하게 되었다. 또한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1970년대부터 지역환경운동, 농민운동,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들이 1988년 한살림을 조직하고 초창기부터 생산자와 소비자가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통하여 한 집 살림하듯 더불어 살게 되면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이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도시지역에서 소비자를,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유기농 생산자를 조직해 왔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생활재 공동구매협동조합 중에서 2008년부터 공급액이 가장 많은 생협인 ICOOP생협은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의 활동가들이 1990년대에 들어와 설립한 지역생협들에 뿌리를 두고 있고 진보정당 운동을 시도하던 활동가들이 1988년과 1992년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운동의 대중적 기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생협운동을 통한 대중조직의 건설을 꿈꾸면서 서울과 인천, 울산, 창원 등 대도시에 생협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ICOOP생협은 “나와 이웃 그리고 지구환경을 위한 소비가 생협 소비의 본질”이라고 보고 ‘서민에게 유기농산물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과 조직의 혁신을 이루어내어 혁신은 조합비제도와 구매대행제, 그리고 조합원으로부터의 목적 차입금의 실시 등 조합원관계의 혁신, 사업의 집중과 조직의 분화를 기치로 시도된 조합과 연합사업조직과의 관계 혁신, 조직의 분화를 통한 권한과 책임의 제고를 목표로 한 연합조직의 혁신 등으로 추진되었다. 에코생활협동조합은 환경운동연합 부설조직으로 2002년 설립, 환경과 사람이 건강한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고 소비자협동조합으로서 개인의 영리가 아닌 조합원 전체의 생활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처럼 생활협동조합의 특성이 1980년대 이후 환경, 생태, 생명사상에 기초한 환경농산물의 직거래활동으로 시작되었고 오늘날 생협운동이 환경농산물 직거래 단체로 인식되어진 배경에는 1980년대 초반 환경, 생태, 생명사상의 고민을 가지고 지역 활동을 펼쳐온 도시지역 환경 생태 운동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생협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생산자본과 유통자본의 횡포로 양질의 생필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공동 구매하는데 있으나 한국의 생협은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생협운동의 발전과 달리 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안전한 농산물의 구매, 환경을 살리는 농업의 지원, 직거래 등) 활동이 전개되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으며 지금도 그 활동의 정신은 동일하다.

특히 원주지역은 이러한 생협의 정책적 환경 운동이 생협을 통해, 또 협동조합의 연대를 통해 드러난 곳으로 ‘원주 협동조합운동협의회’와 시민환경운동이 정책으로 발휘된 지역이다. 2005년 원주의 대기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변화시키고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원주 차없는 거리 문화축제를 진행하고 2007년 GMO FREE ZONE 원주지역 시민들과 소비자 모임을 결성, 2009년 원주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는 등 2009년 원주, 강원지역 골프장 개발 반대 운동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환경 정책에 대한 의제를 도출, 정책으로 승화시킨 지역이다. 이처럼 한국의 생활협동조합의 정신인 환경, 생태, 생명사상은 생태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기본 골간을 이루는 사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더 깊숙이 환경문제를 일상이나 교육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환경운동의 계기가 되었으며 환경농업운동 및 생협운동과 연관되어 실천적으로 전개되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었고 이같은 환경시민운동은 그 특성상 개별적 실천보다는 지역공동체적 실천이 전제될 때 올바르게 전개될 수 있었다.

3. 생활협동조합과 유기농업운동⁵⁾

한국의 유기농업운동은 1970년대 녹색혁명 당시, 농업 생산에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다투입을 전제로 하는 다수확품종을 보급한 정책에 저항하며 발생하였는데 유기농업 생산자는 다투입의 증산정책에 반발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념적 행동으로 여겨져 정권의 탄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생산자는 스스로 ‘정농회’(1976년)나 ‘한국유기농업협회’(1978년) 등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를 설립하여 정기적으로 유기농업기술과 사상을 교육하면서 유기농업 대중화에 기여했다. 당시 친환경농산물 판매는 직거래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유통 기능을 생산자가 주도한 직거래였던 시기여서 1980년대를 이르러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나타나기 이전이었으므로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 판매 그 자체가 유기농업운동이고 생산자는 판매활동과 동시에 농산물이 지닌생명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활동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5) 정은미,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제14권 2호 2006년 자료 발췌

한편 유기농산물의 소비자는 주로 농업문제나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의 회원이었는데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형태는 판매를 위한 유통체계가 성립되지 않은 채 수확기와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의 계절 행사나 일회적인 판매에 불과하였고 직거래의 취급 품목도 저장성 있는 곡류나 농산가공품에 국한되었는데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를 담당할 소비자 측의 주체가 나타난 것은 1985년 이후부터이며 유기농업 생산자들이 판매를 위해 도시에 판매장을 만들어 소비자를 조직하거나 종교단체나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가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를 추진하는 생협 조직을 구성한 것이다.

4. '생활협동조합'法을 통해 바라본 지역 사회 운동 조건

현재 생협이 경제사업으로 취급하는 품목은 주로 친환경농산물과 환경상품인데 1998년 생협법이 제정될 당시, 정부는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주요 사업으로 활동해 온 생협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이 생협법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제공함에도 생협법의 경제사업 영역이 농산물과 그 가공품, 환경용품으로 제한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협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0조(사업의 종류)에 따라 부가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음.

1. 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그 가공품 및 환경물품(재활용품, 재생용품 및환경친화용품 등을 말한다)을 구입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가공 공급하는 사업
2. 생활에 필요한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3. 생활 개선 및 교육,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4. 제1호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한 2010년 생협법이 개정되어 농수축산물과 환경물품으로 제한된 취급 품목이 폐지되었는데 1980년대의 시민단체 및 시민운동, 지역운동에서 도시빈민운동, 농민운동 등이 단순한 대응투쟁만으로는 빈민과 농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반성 속에서 1990년대부터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활동을 확대하면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 한국사회에 부각됐고 협동조합이 조합원 확대를 통해 하나의 가치를 확대할 수 있음에 생협운동이 전략적 대안으로 활용되었음을 볼 때 단순히 친환경농산물 소매업으로 한정지은 것은 옳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에 의거 생협이 지역운동에 연계되었다.

법령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8113호	2021. 4. 20.	2021. 4. 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1516호	2021. 3. 2.	2021. 3.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514호	2018. 12. 31.	2019. 1. 1.

The image shows three pages of the Consumer Cooperative Act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and its regulations. The first page is the main law, the second is the Enforcement Regulations (시행령), and the third is the Enforcement Decree (시행규칙). The text is in Korean and details the structure and operations of consumer cooperatives.

제 4 장 '생활협동조합'의 지역 환경 거버넌스 연대 활동 사례 결과

1. '양천 아이쿱생활협동조합'과 지역환경 운동 연계 사례

'양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양천아이쿱)'은 2021년 현재 창립 22주년을 맞이했으며 양천아이쿱생협의 전신은 별내생협)이다. 최근 조합원들의 지역 환경운동의 첫걸음이 양천 아이쿱이 주도가 되어 2016년 8월 8일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총회로 첫 결실을 맺었는데 추진위원회에는 강서아이쿱생협, 양천아이쿱생협, 인드라망생명공동체, 한살림서울서부지부, 행복중심서울서남생협, 양천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등 강서구, 양천구의 생협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생협 조합원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가 되어 스스로 에너지 소비를 절반 이하로 줄일 것을 약속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초창기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분들은 그 동안 탈원전운동과 밀양송전탑 반대투쟁, 안전한 먹거리운동, 환경생태운동 등에 연대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양천 아이쿱 등 생협의 조합원이 대다수 환경운동을 했던 활동가들로서 특히 양천아이쿱이 만들어지고 양천구의 지역 환경 운동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국내 1호 크라우드 펀딩형 시민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실적을 보유하게 되었고 소셜벤처 루트에너지와 손잡고, 루트에너지가 자체 개발한 재생에너지 전문 커뮤니티 펀딩 플랫폼을 통해 발전용량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위한 펀딩 상품을 만들어 모집을 시작했다. 총 사업비 1억8000만원 전액을 양천 지역 주민과 시민의 투자를 받아 조달한 것으로 이를 주도하는데 양천 아이쿱 등 지역 생협들의 조합원 50% 이상이 참여했으며 지역 내에서 공기업과 지역주민, 생활협동조합이 함께 태양광 발전소를 지은 첫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양천아이쿱 지역환경 교육 연계 활동

▲시민 태양광 사업

2. '논산 한살림'과 지역환경 운동 연계 사례

전국에 70만 소비자 조합원을 둔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과 함께 국내 3대 생협으로 한살림은 2020년 공동실천 의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채택하고, 공동실천 목표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를 설정했으며 2020년 10월에는 제9차 한살림연합 정기 이사회에서 전 조직의 2021년 사업계획에 기후위기 대응 의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기로 했고 2021년에는 한살림연합 미래기획본부 내 '기후위기 대응팀'을 새로 꾸렸다. 한살림 창립 당시부터 '쓰고 버리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되살림의 가치를 생각하며 되살림운동을 활동, 2020년 한 해만 회원 생협에서 판매한 총 118만4130개 유리병 제품에서 41만5490개 공병이 돌아와 회수율 35.1%를 기록했다.

- 6) 1997년 사명감과 운동성을 갖춘 실무자가 조합원 중심의 준비위원회를 꾸리면서 생협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규모가 작아 경영이 열악했으나 양천지역의 별내생협과 강서지역의 어깨동무생협 조합원 120명이 '강서양천생협'으로 통합하여 힘을 키웠다. 초기 63명의 조합원 규모에서 4천명이 넘는 조합원 규모로 성장하는데 20년이 걸렸다. 대중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 규모와 면모를 갖추었으며 사업적으로는 매장을 통해 조합원 규모가 커졌고, 지역 환경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조합원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여 단순히 소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위해서 지역 환경 운동의 주체로써 조합원이 소비만을 목적으로 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조합원 교육을 추진 중임.

특히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5가지 생활 실천을 약속하는 ‘기후위기 하이파이브 캠페인’을 진행하여 텀블러와 손수건을 사용하고, 한 달에 하루 1시간 소등하는 등 지역민들과 환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상시 구성중이다.

2020년 ‘15회 2020 대한민국환경대상’에 지자체 대상에 논산시가 수상했는데 대부분 중소도시가 그렇듯 인구 소멸의 위험, 국토균형 발전을 이유로 무분별한 공단 입지와 개발 사업으로 인해 환경생태계가 변질되는 것에 몸살을 앓았던 논산시에 환경오염 기후변화 제고와 시민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중심에 한살림이 주도가 되었다. 논산지역 한살림의 생명살림운동은 2017년도에 시작되었으나 논산 지역에 생명살림운동과 도농직거래운동의 확산을 위해 논산매장을 개장하였고, 먹거리교육과 결합한 생명살림운동을 빠르게 진행하였는데 2019 생명살림운동과 더불어 지역연대를 통해 지역살림을 실천하고자 논산지역위원회를 창립,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의 모토 아래 생산자조합원과 소비자조합원간 직거래운동을 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생활실천운동도 함께 하고 있다. 지역 내 옷되살림운동을 통해 모인 옷을 지역내에서 판매(귀농귀촌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앞장서는 날’,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나눔장터’ 참가)하여 자원순환운동을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활동을 진행 중이며 특히 논산지역 지역민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꾸준히 5년간 식생활교육강좌를 진행 중이다.

[1강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이해]

GMO식품은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음. 농업생산성을 높이지도 못함. 재배와 반입을 금지하는 국가의 증가추세, 한국은 GMO수입량이 많은 국가(많은 가공품에 GMO옥수수과 콩 사용). GMO표시제에 대한 개선 필요함. GMO를 피할수 있는 생활습관

[2강 식생활 총론(쌀, 전통장, 육식관련 식생활 바로알기)]

쌀 자급률의 감소로 인해 국내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음. 지금의 식량자급률이 지속될 경우 국가간 식량의 무기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음. 전통발효음식의 우수성 확인. 육식으로 인한 환경오염, 탄소배출 증가 그리고 건강악화문제가 있음.

[3강 식품첨가물의 이해]

식품첨가물의 안정성, 논란의 확인. 식품첨가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생활실천방법

[4강 가까운 먹을거리]

수입식품으로 인한 탄소발자국 증가와 환경문제 인식. 가까운 먹을거리(로컬푸드)와 텃밭활동이 주는 유익함에 대한 이해

특히 지역의 청년과 청소년들에게는 가까운 먹을거리(글로벌 푸드 시스템)에 대한 이해, 공장식축산시스템의 확산으로 인한 항생제 오남용과 그로 인한 슈퍼박테리아의 발생, 유기농업실습, 방사능과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 성장호르몬, 내분비교란물질에 대한 이해, 제철요리를 이용한 친환경요리실습 등을 통해 먹거리와 환경의 연관성을 보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논산에서의 지역 환경운동 거버넌스의 중심에 서있는 한살림 논산은 오늘도 슬로푸드를 통한 농촌살림의 식문화적 접근, 기후변화와 생태철학에 대한 이론교육,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식문화에 대한 제안 등을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육식과 환경에 대한 영화<잡식가족의딜레마> 공동체 상영과 감독과의 만남 등을 통해 환경운동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 중이다.



▲논산 한살림 환경 교육 포스터

3. 괴산지역의 ‘한살림’과 ‘아이쿵’의 지역환경운동 사례

충북 괴산군은 지역 차원에서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 경인증단지확대(402ha→500ha), 친환경 벼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 유기농업 전환 손실보전 장려금 지급 등 관행농가의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유기농업 공영관리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한살림과 함께 업무협력을 통해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추진할 계획이며 한살림이 주도하여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기에 가능했고 특히 지역 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업의 첨단화, 자동화를 목표로 미래식품산업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한살림을 필두로 공공급식통합지원센터를 준공하여 학교급식과 서울 등 대도시 공공급식에 괴산군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아이쿵 또한 괴산지역에 ‘괴산자연드림파크’를 만들었는데 100만㎡(약 30만평) 넓이의 땅은 생산공장과 물류센터, 연구시설과 숙박시설은 물론 각종 문화시설(영화관과 레스토랑, 카페)이 조성되었는데 지난 2018년 3월 문을 연 괴산자연드림파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쿵이 조성한 ‘친환경 유기식품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로써 2007년 아이쿵과 괴산군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11년 만에 거둔 성과이다. 괴산자연드림파크 조성에 지금까지 들어간 투자금만 1644억원. 현재 46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데, 아이쿵 측은 2022년까지 지역 일자리 1300개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로써 2014년 전남 구례의 130만㎡(약 40만평) 면적의 땅에 들어선 구례자연드림파크에 이어 괴산자연드림파크가 문을 열면서, 2007년 아이쿵이 괴산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한 아이쿵의 ‘클러스터’ 구상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2014년 먼저 실현됐는데 괴산지역의 환경운동성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농촌지역의 환경운동은 생산자 방식의 농업 보존 환경 운동이었는데 이제는 소비자 환경 운동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괴산아이쿵 소비자후기운동 그린워킹 운동은 지역민과 함께 주변 주요도로 및 쌍천 주변에서 그린워킹(쓰레기 줍기) 활동 등 괴산군민과 함께하는 지역 환경운동으로 크게 발생되었는데 괴산아이쿵생협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그린 워킹(쓰레기 주우면서 걷기)을 매달 실천하고, 친환경 괴산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괴산군민 모두 그린 워킹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면서 초·중·고등학교, 각 사회단체, 부녀회 등에서 그린 워킹 활동을 하면 괴산아이쿵이 기프티, 간식, 티셔츠를 후원하고 있다. 이같은 소비자후기운동은 NO플라스틱 캠페인 그린워킹을 통해 농어촌 지역 환경운동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



▲괴산 아이쿵 환경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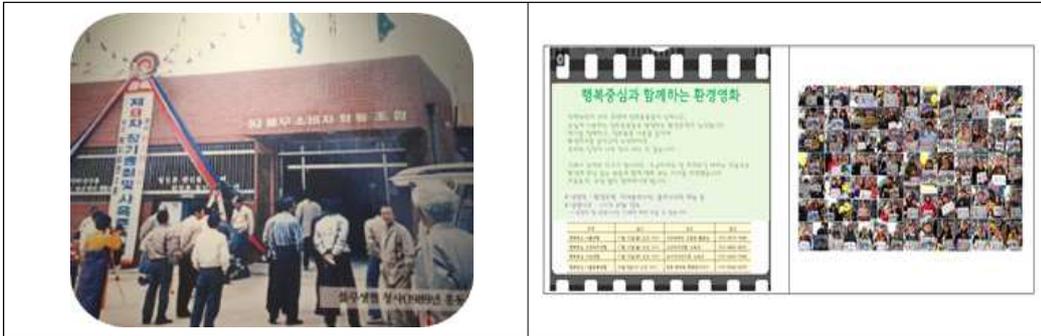
▲한살림 괴산 연수원 조감도

4. 홍성 '여성민우회 생협(행복중심)'과 환경운동 사례

여성민우회생협은 1989년 안전한 밥상과 좀 더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자연 속에서 살기를 꿈꾼 여성 220명이 모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시작했는데 행복중심생협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난 2011년부터 조합원의 참여로 '협동복지기금'을 모아 지역사회의 단체와 개인들의 모임을 지원하고 있는데 '협동복지'란 혼자서, 알아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생활의 문제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거들고 돕는 자발적 복지시스템을 말하고 이를 정부의 최소한의 복지, 획일적 복지와는 달리 협동복지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느낀 당사자들이 직접 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함께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실현 중이다. 특히, 창의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의 문제, 지역의 환경 문제, 복지시스템을 실현하고자 우리 사회의 작지만 의미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여성주의에서의 환경운동 담론을 펼치고 일상 생활 속에서의, 주부의 입장에서 환경운동을 연계, 생활재를 공급하기 시작한 90년대 말부터 우유팩재사용휴지, 재사용식용유로 만든 비누 등 여성민우회 생협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재활용 생활재들을 공급하며 자원순환을 시작했다. 행복중심생협 동북생협 등 매장에는 장바구니를 비치하고 조합원들이 대여, 반납해 비닐 사용을 줄이도록 하고 있는데 생협이 공급하는 생활재의 포장재 환경기준을 확립한 것은 2006년 생활재 선정원칙을 개정하면서 부터인데 이를 위해 내부 환경위원회를 두고 내부 환경위원회에서 재활용 효율이 높은 포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플라스틱 트레이를 없애고 단순포장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음료나 우유 용기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종이나 병 재질로 바꿀 수 있는지, 과일 박스는 100% 종이로 공급할 수 있는지, 반투명한 페트병 대신 투명한 페트병에 담긴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홍성 풀무생협은 우리나라 1호 협동조합으로 풀무학교(충남 홍성읍 홍동면) 교실 반 칸에서 문방구와 생필품 판매로 시작해서 10년 뒤, 1969년 3월 2일 풀무소비자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는데 홍동지역 부녀반을 중심으로 1980년 5월 20일 풀무학교 강당에서 주민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풀무소비자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열렸으며 2013년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충남도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후, 검증된 친환경 생활재를 판매하기 위해 행복중심생협 연합회에 가입했고 여성민우회 때부터 깊은 인연이 있었기에 친환경 로컬푸드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곳은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2020년 6월 기준 홍성군 27곳의 어린이집과 학교급식센터에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소비촉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공무원과 학부모들에게 친환경 급식의 우수성을 알려 큰 호응을 얻었으며 농림부 주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유통부문'에 선정되어 내포신도시에 100여평 규모의 매장을 오픈했다. 이러한 홍성 풀무생협의 역사에는 행복중심이 연계되어 지역 환경운동을 공동으로 추구했는데 1990년대 중반 오리농업이 들어 오면서 홍동면이 전국 최대 유기농업단지로 부상하자 1990년대 말 공산품 판매를 중단하고 유기농산물을 도시에 공급하는 생산자협동조합으로 전화에서 기인된다. 2002년 홍동면 금평리에 배밭 4500평을 매입 건평 160평 쌀 저장창고를 짓고 건조기, 사이로 시설 등을 갖췄는데 논 150만 평, 밭 35만 평의 유기 필지를 확보하고 행복중심 생협에서 합동조합으로의 지역 환경운동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조합원 1000명, 직원이 14명으로 늘어나며 사업이 커졌고 현재 풀무생협은 군내 어린이집의 절반이 넘는 28개 어린이집 1152명 원아들의 친환경급식 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플무생협 준공식 사진

▲행복중심 지역 환경 활동

5. 부평 '두레생협'과 지역 거버넌스 환경운동 사례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21년 슬로건이 '기후위기 대응'으로 두레생협은 친환경 인증제도도 마련되지 않았던 시절부터 약 20년간 생산자와 함께 화학첨가물을 배제한 먹거리와 친환경 농산물을 조합원에게 전달해왔지만 기후위기가 점차 심해지면서 먹거리 생산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실제로 지난 2020년 여름 기후 문제로 국내 참깨 생산량 급감을 경험했다. 이에 기후위기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조합원 23만명과 함께 자원순환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시작하여 2019년부터 먼저 두레생협은 두레교육활동센터를 중심으로 '자원순환운동'을 펼치고 있다. 환경을 위한 일상 속 작은 실천 운동을 표방하고 3년간 지속 추진 중인 1탄 'MY BOX 캠페인'은 평소 집에서 사용하는 아이스팩스를 활용해 스티로폼 박스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으로 2021년에는 포장재 개선방향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제대로 버립니다'로 잡았고 '최소한으로 만들기'위해 13개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운영하고, 이들 매장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포장재와 쇼핑백, 포장박스를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프리(Plastic Free)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두레생협은 자체 자원순환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아이스팩 재사용 프로젝트를 진행, 두레생협과 인천 부평구청,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인천환경연합 등과 MOU를 체결하고, 아이스팩 수거함을 참좋은두레생협 부평점과 푸른두레생협 부평점 두 곳에 비치하고 있다. 부평 관내에서 수거된 아이스팩은 자활센터에서 세척 및 살균한 후 재사용되며 총 4만개의 아이스팩을 수거했는데, 참좋은두레생협 부평점 및 푸른두레생협 부평점에서 부평구 관내 22개 동행정복지센터, 부평구청, 부평구의회,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6개교 등에 아이스팩 수거함이 설치되었고 생협이 지역사회와 손 잡고 아이스팩 재사용에 참여하는 정책을 이끌어냈다.



▲두레생협 아이스팩 재사용 보도자료 및 매장

제 5 장 ‘생활협동조합’의 지역 환경 거버넌스 연대 시사점

한국의 협동조합은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조직으로 조합원의 실익 제고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나, 협동조합 기본 원칙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원칙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어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UN이 인정하는 NGO 중에 가장 규모와 역할이 큰 NGO에 속한다. 따라서 과거 소비자와 생산자 연대에서 이제는 지역사회 연대 조직의 생활협동조합은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나 기업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3섹터 활동의 시민단체들은 자발적이고 민주적이며 사회의 공익을 위해 기여한다는 특징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역운동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앞서 사례를 들어 조사한 생협이 지역 환경 운동으로 연계된 사례와 그동안 한국사회가 가진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 운동의 전환이 자연스레 지역의 생협들에게로 옮겨온 사례가 다양하다. 하지만 생협들의 환경운동과 관련된 지역 시민운동 사례는 현장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체계적으로 연구 발표된 적은 없으며 특히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에 대한 협동조합의 공헌과 관련된 연구는 해외 사례 외에는 국내 사례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생협들이 해외의 협동조합과 가지는 가장 특이한 사례로써 한국의 환경운동이 기존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나 풀뿌리 시민조직에서 지역 환경 문제를 정책으로 대두시켰다면 생협에서의 활동은 협동조합이 가지는 특수한 공동체 거버넌스 확대로 조합원 교육, 조합원 호라등을 통해 자연스레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생활협동조합들이 지역사회의 환경운동을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SDGs 목표에 근접하게 달성할 수 있는지, 이미 얼마만큼 달성하고 있는지 사례기반으로는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같은 생협에서의 지역사회 환경운동성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 측정을 위해서는 SDGs와 연계된 지표를 마련하고 정량분석을 거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두각된다. 예를 들어 공공재나 환경재 등 비시장적 재화의 가치평가를 통해 생협들의 환경 교육과 관련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방법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활용하여 기존의 생협이 활동한 환경적 가치,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들도 제시해 본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 생협이 내세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90%로 이는 모두 일본 정부가 내세운 목표 26%와 80%보다 높은 수치이며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치를 반영한 것으로 과학자들의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어버린 기후위기에 사회공헌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천에 앞장서 온 생협의 시민 환경 운동성이 기반이 된 것으로 이미 한국 사회에서 반백년 넘게 자리 잡은 생활협동조합이 지역 환경운동과 연계된 SDGs를 달성하려면 무엇을 더 잘해야 하는지 분석하는 초석으로 심도 깊은 후속 연구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민석, 최현석, 박병준(2011), 「환경경영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 김성오, 2012, 「협동조합은 고용천국을 보장하는가」, <생협평론> 제 8호.
- 김아영, 2012, 「여성의 참여와 도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원칙과 실천전략」, <생협평론> 제 8호.
- 녹색성장위원회 발간자료(2012),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논의 대응 및 발전방안 연구」 (사)한국정치사상학회.
- 소규호, 2016,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개발 성과 및 중장기 추진 전략」, 제 11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창조포럼: 농림축산업 기후변화 대응전략, 2016년 10월 28일.
- 신호진, 2012, 「협동조합과 일다운 일의 만남」, <생협평론> 제 8호.
- 아이쿱생협, 2018, 「2018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2018년 12월)
- 아이쿱생협, 2019, 「2018년 세이프넷 공동연차보고서」 (2019년 4월)
- 아이쿱생협, 2019, 「2018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사업총괄보고」 (2019년 4월)

7) 현재 환경부의 1년 환경교육 예산은 300억이 넘는다. 하지만 아이쿱 자연드림의 조합원 환경교육 예산은 이미 300억 이상임으로 이에 대한 분석, 가치평가의 필요성도 제기해 본다.

- 아이쿱생협, 2019. 「2019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전국대표자회의 자료집」 (2019년 1월)
- 유현정, 이은희, 차경욱(2013), 「소비자의 친환경소비 및 친환경정보 요구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92013. 12) 제 8권 4호, pp.107-110.
- 유환용(2003), 「기업의 환경경영전략 및 그 실천방안에 관한 소고」
- 이기훈, 최선(2004),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그리고 지속가능성 경영」, 환경경영연구 제2권 제1호,
- 장종익, 2017,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5년의 성과와 혁신과제」, 협동조합기본법시행 5년 평가와 향후 혁신과제 국회토론회 자료집(2017년 11월 28일)
- 장종익, 2018, 「제4차 산업혁명과 협동조합 4.0 시대의 도래 : 플랫폼협동조합과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등장」, <한국협동조합연구>.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7, 「농업의 4차 산업혁명, 다시 주목받는 정밀농」, <심층리포트>(2017년 12월)
- 정학균·김창길, 2015,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 <농정포커스>제 115호.
- 통계청, 「지역소득」, 매년.
- 티머시 미첼, 「탄소민주주의」 (생각비행, 2017년)
- 하승우, 2012, 「살리지 못하면 죽는다: 유럽 탈협동화 경향이 주는 교훈」, <살림이야기> 제17호.
- 하승우, 2013,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흐름과 비판적 점검」, <문화과학>.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매년.
- 한살림 30년 비전위원회, 2017, 「한살림, 새로운 30년의 비전을 묻다: 한살림 30년 비전 제안 보고서」 (2017.01)
- 한살림, 2019, 2018년 한살림 연차보고서
- 한살림, 2019, 2018년 전국한살림 조합원의식조사 결과분석보고서
- 환경부, 「국가온실가스통계」, 매년.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5, 「기후변화와 소비자협동조합」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5-04)
- Bontis, 1998; Edvinsson and Malone, 1997; Sveiby, 1997; Kaplan and Norton, 1992
- Forbes, (2016 March), 'IRIS Tackles 'Metrics Gap' To Help Entrepreneurs and Investors Measure Triple Bottom Line', <http://www.forbes.com/sites/annefie>
-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Haugh, Helen (2005)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 in Reg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2(4): 346-357

향후 연구활용 계획

- 사회적기업학회 연구논문 발표 (2021년 12월 10일 고려대)
- 서울사이버대학교 협동조합경영 교안 활용 (2022년 1학기)
-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학술지 발표 (2022년 6월 중)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지원 자료 제출 (2022년 6월 중)
- 한양대학교 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특강 자료 활용 (2022년 1학기)